

# 다이나믹 춘향제, 글로벌 축제 경쟁력 확보 알렸다

## 서울서 '프레스 데이' 개최

남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96회 춘향제'의 개막 한 달 여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로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2층 리일리움에서 춘향제의 정체성과 특별함을 언론에 공개하는 제96회 남원 춘향제 프레스 데이 &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크 총회, 춘향다움을 K-문화자신으로 빌드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프레스데이는 '다이나믹 춘향제 96년의 유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춘향제만이 가진 독보적인 정체성과 특별함을 언론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서울 소재 중앙일선지 여행담당기자, 한국 주재 외신 기자단, 국내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제96회 춘향제의 방향성과 관전 포인트 등을 서울경제TV 아나운서이자 88 미스춘향 현 김수현의 사회로 진행해 소개했다.



이슈메이킹서 AI 기술 활용 홍보 영상·춘향카니발 쇼케이스 선봬  
 춘향의 가치 재정립·춘향다움 지속성 자산화 위한 앰버서더 총회도  
 “시민 참여형 축제”... 최경식 시장, 축제 핵심 요소·운영 방향 발표

### #AI 기술과 전통 예술의 만남... '춘향제 이슈메이킹'

이 행사는 1부인 '춘향제 이슈메이킹'에서는 이번 축제의 변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춘향제 홍보 영상 인트로를 선보이며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이어지는 공연 세션에서는 춘향카니발의 4색 맵시(기품·결기·사랑·전통) 쇼케이스가 선보여 많은 취재진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기품·결기 부분에서는 김예은(86회 숙), 허윤(82회 현) 기획으로, 인무 양유진 외 허윤(82회 현), 김시아(92회 현), 안지민(94회 선), 신서희(93회 미) 등 4인의 역대 춘향 앰버서더가 춘향의 내면과 외면을 나타내 축제의 주제를 몸짓으로 표현,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제92회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명창 서의철이 '춘향제 전기수'로 분해 춘향제를 다채롭게 소개하는 등 조선 후기 이야기 기풍의 모습을 재현하며 깊이 있는 울림을 전달했다.

또한 사랑·전통 부분에서는 포사이트 컴퍼니의 퍼포먼스가 남원 춘향제의 유니크함을 캐릭터화하는 등 남원춘향제의 축제성을 다

### #춘향 앰버서더 활동 방향 공유

2부에서는 '2026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크 총회' 자리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오는 2030년 1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춘향제가 전통축제에서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춘향의 가치 재정립'과 '춘향다움의 지속성'을 자산화하기 위한 자리로 역대(당대) 춘향 40명이 참여했다. 이어 1부 프레스데이에서 선보인 춘향 앰버서더 보인 기품, 결기 퍼포먼스에 이어 2부에서는 그간 춘향제에서 배출된 '역대 춘향'들과 남원시와의 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면서 '춘향 앰버서더'로서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다. 그 결과로 3명의 춘향 앰버서더가 대표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 역대 춘향은 “그간 예음화라는 모임만 갖다가 남원시와 이번에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 방향을 고민하는 하는 자리를 갖게 돼 매우 의미있었다”면서 “앞으로 춘향 앰버서더’로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경제 활성화

이어지는 브리핑 세션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제96회 춘향제의 핵심 요소와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축제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문화 융복합 프로그램 강화 및 대중적인 국악 공연 확대, △시민 참여형 축제: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문화 조성 및 남원 사랑춤 확산 등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세계적인 명품에만 앰버서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의 '춘향'이 곧 남원의 명품이고, 아이미 바로 남원을 알릴 브랜드자신이자, 공공외교까지 담당할 앰버서더 '다녀서'” 이번 행사가 그 첫 번째 발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춘향제에서 배출된 '춘향'을 지속적인 춘향다움으로 K-자산화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931년 시작돼 올해로 96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는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가장 긴 축제로, 올해는 '춘향의 밭,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슬로건으로 4월 30일(목)부터 5월 6일(수)까지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요천면 일원에서 열린다. /남원=김기우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